

“지역 인재 채용 늘고 농산물 구매 확대”

나주혁신도시 5개 기관 지역발전 토론회서 상생 사례 발표 청년 창업 지원·다문화가정 2세 교육·장학금 신설 등 노력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일부 기관은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60%로 높이고 지역 업체 구매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7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협력 사례’를 통해 공개됐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나주에 등지를 둔 인터넷진흥원은 이듬해 전체 채용인원의 60%에 달하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채용비율은 전년 15.4%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09개 지역이전 공공기관 중 2번째로 많았다.

지역경제와 상생하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5개 지역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었고 광주·전남 농산물 구매 비중은 2017년 32.4%에서 지난해 46.8%로 증가했다. 이외 나주지역 초등학교 생에게 놀이형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펼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ICT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사학연금은 지역 보육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퇴직 교직원들을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있다. 최문현 사학연금 혁신파트장은 “사학연금봉사단 등의 사회공헌 활동 경제가치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지역대학에서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도 4회 열고 지역 채용비율을 33.3%로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의 대표적 지역상생 사례로는 ‘로컬푸드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나주 이전 공공기관 14곳은 구내 식당의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들 기관의 로컬푸드 사용률은 기존 32.7%에서 41%로 증가했다. 지난해 9-12월 이전기관에 납품된 농수축산물 300여 품목 매출은 1억 1000만원에 달했다. 400개 농가가 각 140만원의 소득을 가져간 셈이다.

전력거래소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전남도의 사정을 반영한 인재양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초등학교·대학생 등 다문화 가정 2세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과 미술 특기교육을 지원하고 오는 10월께 다문화 2세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들에게 1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체험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올 겨울방학부터는 대학 진로적성캠프 등 멘토링 캠프 비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

정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열어 6개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시민참여혁신단’ ‘사회적가치실무협의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통로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왔다.

진흥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은 ▲혁신도시 약취 해결 ‘환경 앱’ 개발 ▲농어촌 마을방송시스템 전파환경 개선 ▲시설 주민 개방 ▲‘전파 엑스포’ 등 지역 전파행사 확대 등으로 꼽힌다. 진흥원은 사내 어린이 이집 원생 30%를 주민에게 할당하고 있고 ‘나주 드림라운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돕고 있다.

이분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회적가치 추진팀은 “환경 커뮤니티 앱을 개발·보



최문현 사학연금 혁신파트장이 27일 오후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지역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급한 노력 등으로 혁신도시 약취 민원 건수는 1년 새 31.4% 감소했다”며 “전남테크노파크·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광주학생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콘텐츠와 나주 명소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주민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전남도 지역발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투자 업무협약을 맺은 396개사 가운데 절반 정도인 213개사가 실제로 투자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가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의 선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산학연 클러스터 융지 분야를 올해 100% 완료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약취 해결 ‘환경 앱’ 개발 ▲농어촌 마을방송시스템 전파환경 개선 ▲시설 주민 개방 ▲‘전파 엑스포’ 등 지역 전파행사 확대 등으로 꼽힌다. 진흥원은 사내 어린이 이집 원생 30%를 주민에게 할당하고 있고 ‘나주 드림라운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돕고 있다.

이분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회적가치 추진팀은 “환경 커뮤니티 앱을 개발·보

급한 노력 등으로 혁신도시 약취 민원 건수는 1년 새 31.4% 감소했다”며 “전남테크노파크·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광주학생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콘텐츠와 나주 명소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주민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전남도 지역발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투자 업무협약을 맺은 396개사 가운데 절반 정도인 213개사가 실제로 투자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가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의 선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산학연 클러스터 융지 분야를 올해 100% 완료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경력·전문직 18명 공개채용

경력거래소가 참가 이래 가장 많은 경력·전문직을 채용한다.

전력거래소는 경력·전문·신입·공무직 채용을 위한 2019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력·전문직 채용 인원은 발전·송전 설비운영 10명, 건축관리 1명, 산업안전관리 2명, 재난안전관리 1명, 정보기술(IT) 운영 2명, 정보보안 1명, 전력계통(박사급) 1명 등 18명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전·송전 설비 운영 경력직 전문직을 뽑는 것을 비롯해 경력·전문직 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전·송전 설비 운영 경력직 전문직의 경우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담 전문인력(교대근무)으로서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지원 자격은 발전·송전 설비 운영과 관련된 실무 경험 2년 이상의 경력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용 절차는 필기전형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뽑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전력거래소 채용홈페이지(<http://job.kpx.or.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입직은 11명, 공무직은 7명도 동시에 채용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제한채용(광주·전남 이전지역 인제 및 보훈)을 시행한다.

발전·송전 설비 운영 경력직 전문직의 경우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담 전문인력(교대근무)으로서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발전·송전 설비 운영 경력직 전문직의 경우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담 전문인력(교대근무)으로서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한전KDN, 육군보병학교에 ‘IT움’ 4호 기증



한전KDN이 올해 네 번째로 컴퓨터 실을 지역 기관에 기증했다.

한전KDN은 최근 육군보병학교에 ‘KDN IT움 4호’를 기증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KDN IT움’은 한전KDN의 사회적 책임 브랜드로, 한전KDN은 IT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컴퓨터실과 IT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KDN은 육군보병학교와 지난해 11월 ICT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달에는 책 438권을 기증했다.

한전KDN이 지난 2017년부터 기증해온 컴퓨터실은 나주·목포·신안 등 4개소에 이른다. 연말까지 전국 7개 지역 1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전KDN이 올해 네 번째로 컴퓨터 실을 지역 기관에 기증했다.

aT 식품 잔류농약·중금속 분석기술 세계가 인정

국제공인 평가서 ‘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 잔류농약 분석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7일 aT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19 국제공인 분석능력 숙련도평가(FAPAS)’ 결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능력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기구(FERA)이 운영하는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가해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세계 약 70여개 분석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중금속은 지난 5월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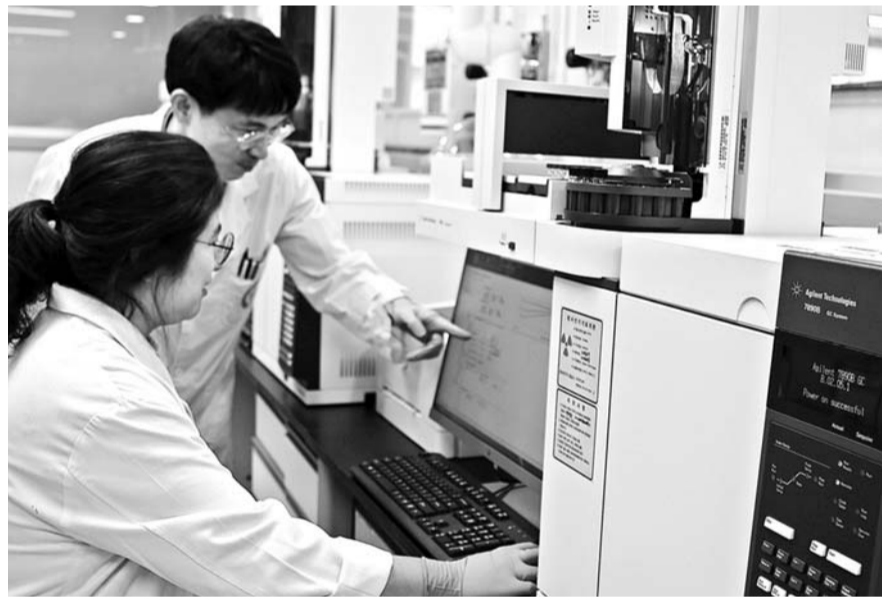
부터 7월11일까지, 잔류농약은 6월13일부터 7월25일까지 평가가 진행됐다.

aT는 올해 처음으로 알드린 등 잔류농약 8개 성분과 납·카드뮴 등 총 10개 성분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에 참가해 10개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금속인 납에 대한 오차범위(Z-score)가 ‘0.0’을 기록하며 참가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aT의 비축농산물 안전관리와 비축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축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 온 aT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자체 품질안전검사가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분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회적가치 추진팀은 “환경 커뮤니티 앱을 개발·보



aT 관계자들이 품질안전실험실에서 농산물 성분분석을 하고 있다. <aT제공>

농어촌공사, 공익 기술 지원 서비스 강화

안전·지역개발 등 4분야

한국농어촌공사(KRC)가 농업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기술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사는 지난 6월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술지원서비스를 종합해 체계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는안전·지역개발·지하수·환경 네 분야로 집중된다.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는 시·군관리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국민 사용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개발 관련 자문·상담은 ‘KRC 지역개발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 검토부터 신규 대상지 발굴과 현장의견 조율, 사업완료지역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까지 제공한다.

또 9개 도 본부별로 배치된 실무경력 전문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관정을 점검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지하수지질 기술지원단’과 환경 관련 법률을 자문하는 ‘환경컨설팅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한전KDN이 올해 네 번째로 컴퓨터 실을 지역 기관에 기증했다.

광주역
연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